

현대 한국민족주의운동에 대응한 기독교교육의 과제

조성국(고신대학교)

1. 들어가면서

교육은 소규모로는 가족 집단공동체의 에토스에 해당되는 세계관을 형성하고, 대규모로는 해당 사회공동체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적극적인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근세에 초등학교 교육으로 대표되는 국민교육제도가 정착된 것은, 근대국가가 국가 내의 다양한 집단들을 하나로 통합하고, 그 통합된 힘으로 국가발전을 이루려는 의도에서, 국가(민족)주의 세계관을 형성하려 했기 때문이다. 교육의 이러한 세계관 형성 기능 때문에 근대나 지금이나, 교육에 있어서 이념성은 교육의 본질적 부분이 되고 있다. 그래서 교육은 해당 국가 혹은 사회의 세계관, 혹은 “화석화된, 굳어진 형태의 세계관”인 이데올로기를 반영한다(VanderWalt, 1994:46).

근대적 세계관이 도입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사회를 주도해 온 세계관은 단연 민족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정치학자 최장집(2001)은 민족주의, 자본주의, 민주주의가 한국현대사회의 주도적 이데올로기였고, 이 세 가지가 거의 동시적으로 발전하였으면서도, 그 순서대로 한국사회의 주요 과제가 되었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민족주의가 자본주의로, 그리고 이후에 민주주의로 완전히 대체된 것은 아니었고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역사학자 강만길(2006:5-7)은 최근의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들을 염두에 두면서, 자신을 비롯하여 한국 근현대 사회를 역사적으로 탐구해온 사람들에게 한국사회는 민족문제와 민족주의적 인식에서 한시도 벗어날 수 없었고, 그 밖에서 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정치사회학자 신기욱(2009:6)은 민족주의가 한국사회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조직 원리이고, 한국 근현대사에서 민족주의는 지속적으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등 다른 이데올로기들을 압도해왔고, 그 다른 이데올로기들이 이데올로기로서의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을 논증하면서 21세기 초에도 여전히 민족주의는 한국사회를 움직이는 원리라고 단정하였다.

한국사회에 대한 학자들의 이러한 분석에 기대지 않는다고 해도, 1980년대 이후 새로운 양상을 보인 반미운동, 일본의 독도 소유권 주장에 대한 거친 반응, 월드컵 경기에서 보여준 붉은 악마들의 자발적인 거대한 집단 응원, 한국계 미국인들의 성공신화를 같은 민족이라는 근거에서 동일화하여 자랑스러워하는 언론보도 등은 민족주의 분출 현상들이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시도한 북한과의 관계정상화 노력과 통일담론, 종종 우파를 친일파 혹은 친미파라 지칭하면서 반민족적 행위라는 기준에서 단죄하려 했던 좌파 정치운동, 미국 소고기를 광우병과 연결하여 수입반대 운동을 불 지핀 촛불집회, 심지어 안티기독교운동에 이르기까지, 민족주의는 한국사회에서 거의 모든 문제들을 평가하고 가치부여 하는 규범이 되어 왔다. 비록 최근에 학문적 논의를 통하여 민족주의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상에서 민족주의는 여전히 신성한 이념이어서 공공연한 비판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민족주의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한 연예인은 네티즌들에게 공공의 적으로 규정되어 무서운 공격 대상이 되곤 한다.

그 동안 민족주의는 한국의 역사학자들과 정치학자들이 회피하기 어려운 주요 연구주제였

으므로 민족주의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물들에서는 민족주의 및 그 동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뿐 아니라 비판적 평가가 시도되었다. 그러나 적극적인 세계관 형성 활동인 교육연구 분야에 민족주의는 역사학과 정치학에서만 주목받지는 못했다. 한국 교육사학의 경우 민족주의는 종종 교육문제서술의 기준이 되어왔다. 그리고 민족주의에 대한 연구는 민족교육이라는 주제 하에 주로 구한말과 일본제국주의시대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해방이후 교육적 세계관에 대한 연구에서 한국사회를 주도하는 정치이데올로기보다 서구 철학 혹은 서구교육이론가들의 사상일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민족주의교육에 대한 반성적, 혹은 비평적 연구는 많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중반 이후 현재까지 교육 분야에 있어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사회 및 교육운동과 그에 대한 반대 운동, 사립학교법개정 문제와 관련된 종교계의 반대운동, 역사교과서 수정과 관련된 논쟁들은 1980년대 이후 지속되어 온 민족주의 교육의 현실을 보여줌과 동시에 이에 대한 반성적 논의의 사건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국청소년과 청년들의 북한과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인식변화는 실제적으로 진행되어 온 민족주의 교육의 영향을 잘 보여준다.

이처럼 한국사회, 그리고 특히 학교교육에 민족주의의 강한 영향력이 반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기독교(교육)는 민족주의에 대한 논의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한국기독교는 그동안 한국사회의 주도적인 이데올로기 안에 적극 참여하거나, 혹은 정반대로 한국사회 밖에 있는 것처럼 사회이데올로기에 무관심한 태도를 취해왔다. 그러나 반성되지 않았을 뿐, 기독교교육이 한국사회의 주도적 이데올로기와 무관할 수는 없었다. 학교교육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대안학교운동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실험되는 시점을 고려할 때, 한국사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기독교교육을 위해서라면 민족주의와 교육의 관계 문제 논의를 피할 수 없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에서 연구자는 기독교 세계관에서 한국민족주의를 반성해보고, 기독교교육이 이와 관련하여 어떤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지 제안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므로 역사학, 정치학적 논의라기보다 기독교 철학적 방법의 논의, 특히 문제-역사적 방법의 논의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기독교철학이란 개혁주의적 세계관의 철학을 뜻한다. 본 논문에서 세계관, 이데올로기, 이념은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그리고 제목에서 표현된 “현대”라는 표현은, 민족주의가 전형적인 근대 이데올로기이지만 일반적으로 해방이후의 한국사회를 현대라는 시대개념으로 구분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고, 또 21세기를 탈근대(현대) 사회라고 말하지만 근대이데올로기인 민족주의가 여전히 오늘에 이르기까지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해방이후의 한국민족주의운동의 양태에 더 집중한다는 뜻에서 현대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2. 현대 한국 민족주의 운동과 논의

1) 한국민족주의의 역사적 발전과정

민족과 민족문화 정체성의 기원을 논의할 때 종종 고대사회에까지 거슬러 올라가 먼 과거에 귀속시키는 경우가 많지만 이데올로기로서의 민족주의의 기원은 근대국가 성립시기와 같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민족주의는, 민족 내에서는 전통적인 신분차별을 넘어 모든 구성

원이 동료의식을 갖는 국민 주권의식과, 다른 민족과의 관계에서는 독립적인 주권국가를 확보하고, 그 영향력을 확대시켜가는 발전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의미에서 근대적 이념이다. 민족주의는 유럽에서 18-19세기에, 그리고 서구 및 일본제국주의 침략에 직면한 제3세계에서 19-20세기에 각성되었고, 서구제국에서는 국가주의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제3세계에서는 종종 민족주의라는 이름으로 지난 세기에 내내 주도적인 세계관으로 기능하였다.

민족주의의 발생과정과 구조를 제국주의 지배하에 있었던 신대륙 사례를 통하여 드러내었던 Anderson(2002)의 경우에서처럼, 우리나라의 민족주의도 일본을 비롯한 외세 침략에 대한 저항의식으로부터 깊이 각성되어 민족운동으로 발전하였고, 점차 민족구성원들이 함께 주권을 가진 민족주권국가 수립의 이상을 발전시켰으며, 해방이후 근대화를 통한 민족국가 발전, 민주화운동, 그리고 통일운동의 동력으로 기능하였다.

민족주의 역사학자 강만길(2008:17-35)에 따르면 한국민족주의 발전과정은 다음의 네 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단계는 구한말 시대로서 개화자강주의와 충군애국주의시대였다. 갑신정변과 동학농민혁명이 주요한 정치적 사건이었으며 종속국에서 독립국으로의 발전을 지향한 시기였다. 아직 국민주권의식이 주요 요건이 아니었으므로 이 시기는 민족주의의 배태기 내지 맹아기로 간주된다.

두 번째 단계는 조선패망이후 상해 임시정부 수립시기로, 공화주의 정부를 수립하려는 이상을 가졌던 시기였다. 3.1운동과 상해임시정부수립이 주요한 정치적 사건이었고, 이 시기에 국민주권사상이 생겨났다. 비록 임시정부 형태이기는 하지만 최초로 국민주권의 공화주의 정부가 수립되었다. 민족주의의 온전한 형태가 이 시기에 분명히 확인되었으므로 근대적 의미의 민족주의는 이 시기에 형성되었다.

세 번째 단계는 1920년대로부터 해방까지의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기존의 개화파 엘리트 중심의 공화주의 우파운동과 더불어 1925년 조선공산당 조직으로 노동자와 농민계층을 기반으로 한 사회주의 좌파운동이 생겨났고, 이 두 진영사이의 분열, 그리고 독립운동을 위한 연합노력이 시도되던 시기였다. 민족연합노력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시기의 대표적 운동은 신간회운동이었다. 이 시기에 기대했던 민족국가는 사회주의 체도를 수용한, 곧 민주사회주의공화국이었다.

네 번째 단계는 해방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시기로, 이 시기는 이념에 따라 우파와 좌파 사이의 정치투쟁이 치열하였고, 남북이 분단된 후 그 상대가 굳어져버린 시기로서 소위 분단체제로 칭해지는 시대이다. 남북이 민족주의 수사를 동원하여 정통성을 내세우며 권위주의적인 국가체제를 확립하고 국가발전을 위해 경쟁하였다. 비록 간헐적이었지만 4.19운동에서 나타난 것처럼 민족통일을 위한 노력은 분출되었다. 21세기에는 6.15남북공동선언과 다양한 형태의 남북교류활동을 통해 민족통일의 이상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게 되었다.

강만길의 네 단계 시대구분은 일본제국주의시대는 세분화하여 그 양태를 둘로 구분하면서도 해방이후 현재까지의 긴 기간을 한 단계로 구분하였고, 또 이 시기 동안의 민족주의 특징을 하나의 양태로 간주한 것은 문제가 있다. 또 민족주의의 주요 요소로 민족연합노력과 자주적 국가, 국민주권은 정통성을 지닌 이상적인 요소로 고려된 반면, 민족국가의 발전을 위한 노력은 위의 요소들을 억압했다는 이유로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요소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최장집(2001:20,30)의 지적처럼 민족국가의 자본주의 발전도 국민주권을 의미하는 민주주의의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의심의 여지없는 필요조건이 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하면서 해방이후 한국민족주의의 실제적 양태들과 논의들에 초점을 맞추어 좀 더 세분하여 자세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2) 현대 한국민족주의의 양태

해방이후의 현대 한국민족주의의 양태를 다룸에 있어 정치(사회)학자들은 크게 남한 민족주의와 북한 민족주의(박호성, 1997), 남한 민족주의와 북한 민족주의와 중도파의 민족주의(윤민재, 2003), 북한과 우리식 사회주의 및 일민주의와 조국근대화(신기욱, 2009) 등의 이름으로 2구분 혹은 3구분 하였으나, 여기서는 민족주의 양태를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 북한과 미국에 대한 입장을 고려하면서 크게 우파민족주의, 진보 및 좌파 민족주의, 북한의 민족주의, 그리고 민족주의에 대한 비판적 담론으로 구분하여 간단하게 정리해보고자 한다.

(1) 우파 민족주의

해방이후 좌파, 그리고 우파와 좌파의 연합지향 민족주의자들과의 헤게모니 투쟁에서 결국 미국의 협조 하에 우파 민족주의자인 이승만이 소위 부르주와 민족주의자들과 함께 정권을 장악했다. 이승만에게 있어서 민족주의의 순수성과 민족국가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은 좌파 민족주의자들의 이상과 정반대편에 있었다. 그에게 있어 좌파 민족주의자들은 더 이상 민족주의자들이 아니라 공산주의자들이었다.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는 민족국가가 결코 빠져서는 안 될 함정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해방이후 민족국가 설립에 있어 이승만에게 공산주의 내지 사회주의는 일본식민지시대에 타협했던 친일파보다도 더 먼 거리에 있었다.

이승만은 정권의 이념으로 일민민족주의를 ‘새로운 국가의 국시’로 내세웠다(신기욱, 2009:162). 일민주의는 오랜 역사를 통해 확인된 단일 민족, 곧 핏줄과 운명에 있어 하나의 민족이며, 따라서 둘이 될 수 없고 항상 하나이어야 한다는 명제에 기초를 둔 정치이념이었다. 그는 일민주의에 근거하여 국민의 단합을 호소함으로써 근대적인 자유민주주의 민족국가를 설립하고자 했고, 그 민족주의 동력으로 민족국가설립과 유지에 위협적인 대상으로 간주된 공산주의에 대응하였다. 이승만이 생각했던 민족국가의 이상은 미국처럼 자유민주주의 국가 모델이었다.

박정희는 민족주의를 근대민족국가의 발전, 곧 ‘조국근대화’를 위한 이데올로기로 전용하였다. 그가 주장한 근대자본주의 민족국가로의 발전에 있어 민족주의의 위치는 신기욱(2009:169)의 지적처럼, 마치 서양자본주의발달에 있어 청교도 윤리가 차지했던 위치와 같았다. 박정희는 경제발전을 통해 한국을 강하고 자립적인 민족국가로 발전시키려는 목표를 지속적으로 천명하였다. 박정희의 이러한 비전에는 그의 경험세계 내에 있었던 일본의 근대화 모델이 반영되었음에 분명하다. 그래서 그는 한일국교정상화를 통해서라도 그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박정희 정권은 북한과의 체제경쟁과정에서 경제발전의 결과로써 민족주의 정권의 정당성을 확인받으려 했고, 국민의 단합된 힘의 동원을 위해 적극적으로는 민족주의를, 그리고 소극적으로는 반공이데올로기를 강화하였다.

이승만과 박정희는 근대민족국가의 이익과 발전과제를 위해 외국문명을 전유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의 민족주의는 자주에 대한 가치보다 민족이익을 위한 실용적 가치가 더 앞섰고, 성격상 밖을 향하여 열린 민족주의였다. 국제 정세와 정치적 현실을 고려한 실용주의적 태도는 그 이후에도 우파 민족주의자들의 주요한 특징이 되었다. 민족국가의 발전을 위한 실용주의적 태도는 외세인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에서 기술도입문제와 시장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우파 민족주의는 이승만과 박정희 추종자들만의 세계관에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이승만과 박정희 정권이 비록 독재정권으로 비판받아 왔지만 임지현(2001:44,54)의 “합의독재” 개념에서처럼, 우파 민족주의는 당 시대에 대중들의 암묵적인 동의를 얻었던, 혹은 대중들과 공유되었던 이념이었다. 6.25로 인한 전국적인 파괴적 상처경험으로 반공이데올로기는 대중에게 오랫동안 정당화되었다. 우파 민족주의가 권위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 성격을 가진 것은 사실 이 두 정권의 탓만 아니라 민족주의 자체가 가진 근대이념으로서의 성격 때문이기도 하다.

그 이후 전형적인 우파 민족주의자 중 한 사람인 김영삼은 이승만과 박정희의 전체주의와 독재정권, 그리고 정권유지를 위한 도구로서의 반공이데올로기를 강하게 반대했지만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민족국가 우선성과 정체성에 대하여 의심하지는 않았다(박호성, 1997:13). 그는 민족국가의 발전을 극대화하기 위해 세계화를 기치로 내세웠다. 우파 민족주의자들은 미국과의 동맹관계 혹은 우호적 관계를 강조하는 반면, 북한을 경계하며 불신하기 때문에 종종 친미파로 간주되기도 한다. 그들의 사고는 현실주의적 혹은 실용주의적이고, 민족국가의 정체성을 자유민주주의에 두고 국가의 발전과 선진화를 지향하는, 열린 민족주의를 강조한다.

(2) 좌파 및 진보적 민족주의

좌파 및 진보적 민족주의자들은 해방정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후 이승만과 박정희 정권에서 공산주의자로 지목되어 엄청난 탄압을 받았다. 유신정권 하에서는 학생이념단체와 노동자단체를 통해 지속되다가 1980년대 이후에는 민주화운동, 그리고 시민운동단체들을 통해 사회정치 활동을 시도해왔고, 김대중에 이어 노무현 정권에서는 우파 민족주의자들로부터 상당한 견제를 받으면서도 여론을 주도하였고 정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좌파 민족주의자들은 해방정국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민중들을 대변하던 좌파민족주의 세력이 부르주와 우파 민족주의자들에 비하여 압도적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종종 지적한다. 친일세력을 단호하게 처단하고 사회주의 민족국가를 설립함으로써 평등사회를 실현하려 했던 이상이 상당한 대중적 지지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군정의 지원 하에 이승만 정권이 서둘러 단독정권수립을 도모하였고, 친일파와 야합하여 좌파세력을 공산주의자로 낙인찍어 궤멸시킴으로써 민중의 의사에 따른 통일된 사회주의 민족국가 수립이 실패로 끝났다고 주장한다.

진보적(중도파) 민족주의자들은 강만길(2006:87)의 주장처럼, 김구와 김규식이 비록 자신들의 입장은 우파였으나 좌파 세력과 타협해서라도 통일 민족국가를 세우려했던 것처럼 그 방향을 따랐어야 했다고 주장한다. 진보적 민족주의자들은 해방직후 한반도 주변상황에 비추어볼 때 쉽지는 않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이승만의 방해가 없었다면 우파와 좌파가 연합한 통일 민족국가가 수립될 수도 있었다고 본다. 진보적 민족주의자들은 민족주의의 이념적 우선성을 강조하면서 친일파 처단과 더불어 외세를 배제하고 민족이 자주적으로 미래를 결정할 수 있어야 했다고 본다. 그래서 그들은 미국이 철거한 친일청산을 불가능하게 했고 자주적으로 통일된 민족국가를 수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막아버렸다는 점에서 미국을 또 하나의 외세, 곧 제국주의세력이라고 본다.

진보적 민족주의자들은 박정희 정권이 4.19에서 분출된 민족통일의 불씨를 꺼버리고 독재정권 유지를 위해 민족주의자들을 공산주의자로 낙인찍어 탄압했던 사실에 대하여 지울

수 없는 상처를 갖고 있다. 그들은 국가와 민족의 일치라는 민족주의 원칙에 기대어 이승만과 박정희, 그리고 해계모니를 권 우파 민족주의자들이 자주적인 민족통일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거나 억눌렀다고 간주하여 그들을 반민족적 수구세력이라고 낙인찍었다. 신군부에 의한 광주학살사태는 독재정권과 신군부의 행동을 목인한 미국에 대한 분노로 발전하였고, 결국 남한사회의 모든 비민주적 불합리와 경제적 왜곡이 결국 분단체제에 기인한다는 확신으로 이어졌다(서중석, 2004; 백낙청, 2007).

남한 사회에서 가장 극단적이었던 좌파 학생민족운동단체 NL(민족해방)은 한국사회의 지배구조 전체를 부정하였고 새로운 대안사회를 건설하려는 이상에 따라 한국사회의 모든 책임을 제국주의 국가 미국에 전가하기에 이르렀고, 이후 철저한 반미민족주의를 발전시켰다. NL은 반미 민족주의를 철저하게 실천했다는 점에서 북한을 긍정적인 실체로 간주하였다(최장집, 2001:407).

NL, PD(민중민주주의), BD(진보적 민족민주주의) 등을 포괄하는 좌파 및 진보적 민족주의자들은 1980년대 이후 군부독재정권에 저항하면서 한국사회의 반미운동을 주도하였고, 소위 “수구적인 반민족적”이라고 지칭된 우파세력에 대항하였다. 그들은 21세기 최대의 과제를 민족통일로 정하고 통일운동에 앞장서 왔다. 진보 및 좌파 민족주의자들은 6.15남북공동선언에서 흥분을 감추지 못했고, 그 이후 민간차원의 공식적 남북교류활동을 주도하였다(강만길, 2006; 백낙청, 2007).

그러나 공산권 붕괴, 북한의 경제적 붕괴, 독일의 흡수통일 경험은 진보적 민족주의자들조차도 통일문제에 있어 더 이상 낭만적인 태도가 아닌, 현실적인 태도를 갖게 만들었다. 그들은 흡수통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급속한 통일을 더 이상 원하지 않게 되었고, 북한의 붕괴를 막기 위해 북한체제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확대하면서, 미국의 패권주의가 북한의 붕괴를 가속시킬 수 있다고 보고 북한에 대한 미국의 강경정책을 막고 섰다. 이제 그들은 민족통일이 남한과 북한을 대등하게 아우르는 것이어야 한다고 보고 긴 세월 후로 미룬다.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그 대신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한국이 중심이 되어 동북아를 평화체제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그들은 우파 민족주의자들로부터 친북, 반미, 친중파로 칭해졌다.

진보적 민족주의자들도 이제는 열린 민족주의를 주장한다. 민족구성에 있어서도 더 이상 혈연에 집착하지 않고 오직 소속감을 기준으로 외국인에게까지 열린 민족개념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한다(강만길, 2006:41). 그리고 민족주의에 갇히지 않고 동북아지역주의, 환경운동과 평화운동으로 관심을 확장하고 있다(백낙청, 2007).

(3) 북한의 민족주의

신기욱(2009:128-130)의 지적처럼 해방이전 공산주의는 민족주의, 그리고 식민주의와 대립되는 이데올로기였다. 공산주의자들은, 식민주의는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이고 민족주의는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라고 비판했다. 민족주의자들도 공산주의의 계급운동에 반대하였고 계급보다 민족을 앞세웠다. 그러나 반식민주의 노력에 있어서는 연합전선을 형성하기도 했다. 남한사회가 지속적으로 북한의 정체성을 공산주의로 확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치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은 공산주의 정체성에서부터 점차 민족주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으로 나아갔다.

공산주의자들은 레닌의 주장처럼 민족주의는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이므로 유해한 것이지만

혁명에 도움이 된다면 이용한 후 나중에는 폐기해야 한다고 보았다. 스탈린도 민족주의의 전략적 가치를 인식하여 민족주의자들과의 대중전선 가능성을 인정하였다. 마오쩌둥은 공산주의 국가수립을 위해 외세인 일본과 싸우는 일에 있어 적극적으로 민족주의 세력과 협력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마오쩌둥은 민족주의적 사회주의자로 분류되기도 한다(신기욱, 2009:139).

김일성은 해방직후 민족과 민족주의라는 용어를 의도적으로 회피하였으나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자신의 권력기반이 안정되면서, 그리고 소련과 중국의 이데올로기 논쟁에서 양자 중 어느 한쪽에 서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양자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주체적인 이데올로기를 발전시켰다. 그는 1955년에 주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였고, 공산주의에 민족주의를 전유해 자체의 독자적 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을 만들어 1967년 이후 북한의 공식적인 이데올로기로 공포하였다. 김정일은 주체사상을 마르크스-레닌주의로부터 독립된, 마치 스탈린주의나 마오쩌둥주의 등과도 대등한 수준에 비길 수 있는, 김일성주의라고 지칭했다(신기욱, 2009:147). 주체사상은 북한식의 공산주의였다. 북한은 전유한 민족주의에 따라 점차 민족과 민족주의, 혈통이라는 표현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 후반, 소련과 동유럽이 붕괴되면서 북한은 그들과 거리두기를 통한 생존전략으로 더욱 민족주의를 추구하였다. 김정일은 소련과 중국의 개방정책을 비판하면서 북한의 독자성을 강조하여 조선민족제일주의,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슬로건을 사용하였다. 그 사상은 지도자와 당과 인민 사이의 혈연과, 동일한 운명의 유기적 연대를 강조하는 민족주의 언어로 표현되었다. 한 혈통에서 나와, 하나의 언어와 문화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역사적으로 형성된, 공고한 집단으로서의 단일민족을 강조하였다(윤민재, 2003:62). 민족은 자주성을 드러내는 사회의 기본단위이면서 자주적인 생활을 하게 하는, 혁명과 건설의 투쟁단위로 간주되었다(박호성, 1997:112).

1992년 4월 북한은 헌법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삭제하였고 공식적으로 민족주의국가를 자처하였다. 민족전통과 유산을 강조하였고, 1993년 단군릉을 발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고, 유교를 재평가하는 등 적극적으로 민족주의 정책을 펴 나갔다. 그래서 정치학자들은 북한을 “사회주의가 없는 사회주의”, 이름은 사회주의지만 내용은 민족주의로 가득한 “국수주의적 민족주의”, 형식적으로는 스탈린주의지만 “내용상으로는 민족주의”라는 평가를 하기에 이르렀다(신기욱, 2009:153). 비록 체제 유지를 위해 민족주의를 전용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면 북한의 이데올로기는 단혀진 민족주의의 전형적 형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박호성(1997:144)의 지적처럼 북한의 강한 민족주의 호소는, 민족주의 자체가 위기의 이데올로기라는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북한사회의 위기를 반증한다.

북한이 주체사상을 통해 김일성을 단군의 현신, 곧 민족의 아버지로 부르는 혈연 가족적 민족국가임을 천명할 때 이미 민족주의적 성격을 반영하였다. 공산주의 사회의 역사적 위기 경험에서 북한은 점차 민족주의에 호소하는 국가가 되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구도는 브루스 커밍스의 지적처럼, 아버지인 천황으로부터 혈연적 유대를 이루는 것으로 믿었던 일본의 근대민족주의 구조와 흡사하였다(신기욱, 2009:155). 조선시대 국왕에 대한 경외의 숭배경험과 그 이후 일본식민지시대 천황숭배의 경험 직후 지금까지 폐쇄된 사회 안에서 경험된 전체주의 이데올로기 하에서 김일성과 김정일 숭배사상이 나온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민족주의는 원래 성격상 것처럼 획일적인 집단주의적 이데올로기를 지향한다.

(4) 민족주의 이념에 대한 비판적 담론

앞의 세 가지 양태가 낭만주의적 토대에서 민족주의를 의심할 여지없는, 무조건적인, 생래적 이데올로기로 간주하거나, 혹은 국가적 이상실현을 위해 민족주의의 힘을 적극적으로 전용한 경우들이라면, 여기서는 민족주의에 대한 반성으로서의 비교역사학 및 정치사회학적 논의와 비평들의 요점을 간단하게 정리해 본다. 1980년대 이후 사회현상에 대한 객관적 반성과 해명을 시도하는 정치사회과학과, 국사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역사와의 비교연구에서 민족주의에 대한 논의는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한국민족주의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주요한 문제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다.

첫째, 민족주의에 대한 많은 연구자들은 Anderson(2002:23,25)의 주장처럼 민족의 개념과 민족주의가 근대적 발명품이라고 본다. 민족을 역사적, 문화적 구성물로서 상상의 공동체로 본 Anderson의 견해나, “대내외의 논쟁적인 정치의 결과 역사적으로 각인되고 구조적으로 우연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구조의 산물”로 간주한 신기욱(2009:25)의 정의는 많은 정치사회과학자들의 견해를 반영하고 있다. 비록 민족이 혈통, 언어, 역사, 문화를 공유한 집단을 의미한다는 이유로 민족주의자들이 그 기원을 원시역사와 신화에, 적어도 역사적으로 근대 이전의 공동체로부터 찾으려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사회과학자들은 민족주의가 형성된 역사적, 심리적 조건과 그 과정을 분석해냄으로써 그것이 근대에 만들어진 하나의 이데올로기임을 드러내었다. 이러한 연구의 함의는 민족주의자들의 주장과 달리 민족주의가 생래적이거나 본질적이거나 절대적인 이데올로기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둘째, 민족주의에 대한 연구자들은 민족주의가 통합을 위해 구성된 이데올로기임에도 불구하고 기대와는 달리 분열의 이데올로기로 기능하는 내면적 특성을 드러내었다. 인종적 의미의 민족적 단일성 주장에도 불구하고 민족을 대표하는 집단이 누군가, 혹은 민족을 대변하는 집단이 누군가 하는 대단히 논쟁적이고 정치적인 정체성 논의는 민족 내부에서 극복하기 어려운 긴장과 갈등을 유발한다.

그래서 특정 정치적 집단에 의해 독점된 민족정체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순결한 사람들이 되는 반면, 그 정체성을 위반하거나 위협한다고 가정된 대상은 소위 “검은 양”(신기욱, 2009:241)으로 간주되어 해당 집단에서 분리되고 가차 없이 반민족이라는 낙인이 찍힌다. 그 때 그 검은 양 집단은 민족 외부의 세력보다 더 극단적인, 사악한 위협세력으로 간주되어 심판받는다. 남한 사회에서 우파는 그 검은 양을 공산주의자라고 낙인찍고, 좌파는 그 검은 양을 수구적이고 반민족적인 민중의 적이라고 낙인찍었다. 그리고 국가와 민족 일치라는 원칙에 따라 분단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간주된 대상을 반민족적 행위자로 낙인찍었다. 그리고 신기욱의 지적처럼 남과 북 사이에도 평화로운 공존을 누리지 못하게 했고, 전쟁을 벌여 황폐화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그 후에도 지속적인 갈등과 긴장을 유지시켰다(신기욱, 2009:239).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민족주의는 사실상 분열과 대립의 기재로 작동했다.

셋째, 민족주의 연구자들은 민족주의가 근본적으로 전체주의적, 권위주의적 근대 이데올로기여서 실제로 개인을 억압하였다고 비판한다. 민족이라는 집단이 실제로 인정되고 개인은 그 실체의 일부이므로 민족주의는 개인에게 강압적으로 강한 결속력을 요구하였고, 개인을 그 상상된 실체로서의 민족 생존과 발전에 헌신해야 할 도구적 존재로 가정한 이데올로기였다. 사실상 민족주의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대중을 동원하는 이데올로기로 기능하였다. 민족주의의 이러한 특성은 전체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독재정권을 낳았고 민족주의는 그

독재정권을 정당화하는 이념적 도구로 사용되었다. 그 결과 소위 민족주의 정권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민족의 일원이므로 자신들의 기대와 같이 행동하기를 기대하였다. 만일 어떤 사람이 개인주의적이어서 비협조적이거나 다른 가치를 주장하면 마치 가족 규범에서 탈선한 가족 구성원에게 하는 것처럼 비민족적이거나 심지어 반민족적인 행위를 한다고 비난하였다. 이러한 경향성은 필연적으로 개인의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를 억압한다. 그래서 신기욱은 민족주의가 한국사회 안에서 자유주의의 사상적 빈곤을 초래했다고 말한다(신기욱, 2009:205, 273). 진보적 역사학자인 임지현(1999; 2001)은 민족주의를 기만적인 파시스트적 대중동원 이데올로기라고 비판하면서 좌파가 민족주의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에게 민족주의는 그의 책 제목의 일부처럼 “민중에 대한 반역”이었다.

넷째, 민족주의 연구자들은 민족주의의 가능성과 한계를 함께 고려하면서 오늘날 열린 민족주의를 주장한다. 한편으로 민족주의 연구자들은 민족주의가 국민의 통합된 정체성에 근거한 자주적 긍지를 표현해주고, 다양한 이념분과를 수용할 수 있는 통합이념이며, 국가발전과 이익을 지향한 동원력이 있고, 남북통일의 명분이면서 동시에 통일된 민족국가의 공동적 유대 이념이라는 근거로 민족주의는 21세기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중요한 이념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시에 민족주의 연구자들은 민족주의의 국수적이고, 배타적이고, 인종적이고,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약점들을 극복하여 21세기의 세계화 내지 다원화된 사회에 맞게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열린 민족주의 혹은 개방적 민족주의가 대세이다(김동성, 1996:342). 그 개방성에는 보편적 인류애, 평화로운 공존, 개인의 인권과 자유, 외국인에 대한 포용성, 생태학적 고려, 다양한 이념을 향한 개방성도 포함된다.

3. 한국 민족주의 운동에 대응한 기독교교육의 과제

한국사회의 주도적 정서 및 조직 이념인 민족주의에 대응하여 기독교교육이 수행해야 할 과제는 기독교세계관에서 이데올로기로서의 민족주의를 반성함으로써 민족주의를 정당한 위치에 두도록 하는 기독교세계관 교육의 과제, 그리고 민족 혹은 국가공동체를 위해 기독교적 가치에 따라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인간형성을 위한 교육적 과제를 의미한다. 전자는 소극적 차원으로서 민족주의의 왜곡 경향을 피하게 하는 교육이라면, 후자는 적극적 차원으로서 민족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족 공동체 안에서 바른 방법으로 기여하게 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1) 민족주의의 종교성과 환원성을 반성하는 세계관 교육

민족주의 혹은 국가주의는 근대 곧 18세기 이후 20세기 전반까지 유럽 국가에서 정통성을 누린 이데올로기였다. 국가주의 혹은 민족주의는 제국주의 국가팽창의 이데올로기였다.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유럽의 기독교지도자들도 민족주의의 창출자이면서 선전자가 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찍 계몽주의 근대의 정치적 세계관에 대하여 비판적인 안목을 가졌던 네덜란드 칼빈주의자들은 민족주의의 실재에 대한 왜곡성과 종교성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비판하였고 자기 나라에서의 민족주의 운동에 저항하면서 개혁주의 세계관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세계관교육이라고 말할 때 그 내용 중 많은 부분은 그들이 발전시킨 개혁주의 철학의 통찰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 관점에서 볼 때 민족

주의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제거시킬 수 있어야 한다.

첫째, 민족주의는 민족이라는 개념 혹은 그에 해당되는 특정 국면들을 절대화, 신격화시킨 우상의 숭배, 곧 종교적 이데올로기이다. 창조세계 내의 생물학적 국면과 역사적 국면에 뿌리를 둔 집단적 관계 개념으로 간주된 민족은 낭만주의의 영향으로, 하나의 조직체로서 간주되지 않고 유기체로 이상화된 개념이며, 그래서 기원적이고, 영원불멸의 성격을 지닌 하나의 유기체로 믿어졌은 개념이다. 민족개념이 그 집단의 정신, 절대기준이 되어 모든 구성원에서 규범을 부여하고 행동을 처방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규범적 위치를 망각하고 그것을 대체하였다. 따라서 민족주의는 Spier(1979:120-121)의 표현처럼, 민족의 신격화 현상이다. 종족민족주의에서는 생물학적 국면과 역사적 국면이 절대화되었다.

민족주의 연구자들도 민족주의의 종교적 성격을 지적하였다. 예컨대 임지현(2000:6-7,14,339,350)은 민족주의가 말하는 민족은 신화적 실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족주의는 단군숭배에 공통의 접점을 두려고 하고, 민족을 주술로 불러내는 신화적 담론이고, 이데올로기이며, 종교라고 지적하였고, 폐쇄적인 민족주의는 우상숭배라고 비판했다. 단군신화는 한국민족주의자들이 민족의 신화적 기원과 근거를 위해 늘 끌어오는 종교적 기원이고, 그것은 쉽게 종교화되어 단군에 대한 숭배행위조차 강요하였다. 19세기 네덜란드 개혁주의자들은 세속적 근대민족국가 형성기에 이미 민족주의의 종교성을 간파했다. 흐룬 판 프린스터는 민족주의가 불신앙적 종교라고 단정했고, 그것이 기독교세계관에 큰 해를 끼칠 것을 경고하였다(조성국, 2008).

둘째, 민족주의는 민족 혹은 국가를 절대화함으로써 다른 집단들의 권리와 책임과 과제를 환원시키는 오류를 범한다. 민족주의는 한 민족이 한 국가를 형성한다는 이데올로기로서 민족주의는 결국 저항적인 형태라고 해도 미래의 민족국가형성과 발전을 지향하는 국가 절대이념이며, 그것으로부터 사회 안의 다른 모든 집단들이 법적 정당성을 부여받게 하는 국가 우상숭배이념이다. Spier(1979:212)는 전체주의 국가는 주권을 가진 다른 사회집단을 약탈하고 노예상태로 밀어붙이는 우상이라고 단정하였다.

하나님은 사회의 다양한 집단들에게 각 해당영역에서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각각의 규범에 따라 존재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독특하게 수행해야 할 과제를 부여하셨다. 따라서 어느 한 집단이 절대화되어 다른 것들을 그것에 예속시킴으로써 그 다른 집단들의 원래 기능과 과제 수행을 환원시켜버려서는 안 된다. 국가는 사회 안의 다른 기관들처럼 제한된 권위로 독특한 과제를 수행하는 하나의 관계집단이다. 개혁주의 세계관에서는 이러한 설명을 아브라함 카이퍼의 표현에 따라 영역주권이론이라 칭한다. 개혁주의자들은 특히 국가가 학교교육을 독점하여 불신앙적 민족주의 형성의 도구로 삼았을 때 이에 항거하여 기독교세계관을 형성할 수 있는 사립학교의 자유를 위해 오랫동안 법적 투쟁을 벌였다. 그리고 민족과 국가는 다른 세계관들을 압제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와 같은 시도는 민족국가를 결코 통합된 상태로 이르게 할 수도 없다. 네덜란드의 역사에서 벨기에의 분립은 민족주의로의 통합이념 강제에서 비롯된 결과였다.

셋째, 개혁주의 기독교세계관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반립(antithesis) 상태의 이해이다. 타락이후 창조세계의 모든 영역은 생래적으로 성(聖)과 속(俗) 중 어느 하나일 수 없게 되었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규범에 순종함으로써 성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고, 정반대로 다른 우상숭배에 따른 결과 속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따라서 모든 영역에서 불신앙의 우상숭배방향과 신앙의 하나님 섬김 방향이 반립하고 경쟁한다. 민족과 국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민족 혹은 국가, 혹은 민족국가는 그 자체의 본질이 성 혹은 절대선이 아니

다. 민족과 민족공동체 안에서도 종교적인 반립, 곧 신앙적인 방향과 불신앙적 방향이 반립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개혁주의자 흐룬 판 프린스터러는 19세기 국가에서 이러한 반립을 주목했고, 불신앙적인 계몽주의적 근대 민족주의가 아니라 기독교 세계관에 따른 민족교육을 주장했다(조성국, 2008).

Botha(1984:493-503)가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계 백인들이 제국주의 세력 영국에 맞서 기독교 민족국가주의를 발전시켜온 역사를 분석하면서, 종교적 성격으로서의 신앙과 불신앙의 반립을 네덜란드계 백인민족과 영국사이의 반립으로 대치함으로써 개혁주의 세계관의 기대방향에서 벗어났고, 그 결과 정치적 반립투쟁을 통한 승리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꺾이기 승리가 되고 말았으며, 정치와 교육에 있어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한 것은 기독교인 한국민족주의자들에게도 의미 있는 지적이다. 민족 그 자체로는 무조건적인 선과 성이 아니다. 동시에 민족에 대립된 대상이 무조건적인 악과 속도 아니다. 민족과 국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실천하는 한도 안에서 비로소 바른 방향으로 나아간다. 기독교인들은 그 방향으로 민족과 국가의 일원이며, 반립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방향을 선택한다.

근대 민족주의에 대응하여 개혁주의자들은 강제적인 세속적 민족주의 형성교육에서 독립하여 기독교 세계관 형성의 자유를 유지할 수 있는 사립학교설립과 운영의 합법성을, 곧 신앙적 방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규범에 따라 민족과 국가에 봉사하는 방향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기독교세계관교육을 통해 불신앙적 민족주의와의 반립관계 안에서 기독교세계관을 형성하고, 기독교세계관에서 불신앙적 이념들을 비판적으로 반성하는 교육을 시도하였다.

2) 사랑, 정의, 평화를 지향하는 교육

종족으로서의 민족은 기독교인에게 벗어날 수 없는 사랑의 대상이다. 모세가 심판에 직면한 자신의 동족을 위해 하나님께 간청하면서,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출 32:32)라고 말한 것과, 바울이 불신앙적인 동족들의 구원을 열망하면서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롬9:1-2)라고 고백한 것이 민족을 향한 기독교인들의 마음이다.

혈연적, 역사적, 문화적 조건인 민족은 기독교인들이 벗어날 수 없는 삶의 환경이며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현실적 부분들이다. 민족은 친밀성 유대의 생애적 조건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기독교인들에게 민족이 규범이 되어야 한다는 믿음으로 나아가지는 않는다. 민족은 절대규범이 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 절대자의 자리에 있고, 법칙과 규범을 부여하신 분이시며, 창조세계 내의 모든 존재는 모두 하나님의 법칙과 규범에 종속된 존재들이고, 규범에 대한 순종과 과제수행으로 의의를 드러내는 존재들이다. 이 원리에 기초하여 생각할 때 민족공동체는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섭리 하에 존재하게 된 역사적 현실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서 실천해야 할 장(場), 곧 과제수행의 장이다. 그러므로 민족은 사랑의 대상이며 소명감을 가지고 일해야 할 일터이다.

한국 근현대사에서 기독교인들은 민족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종종 의미 있는 기여를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많은 한국기독교인들이 견지했던 이원론적 세계

관 때문에 민족공동체는 종종 세속의 영역과 동일시되었고, 그 결과 사랑과 봉사가 거룩한 영역인 교회 내로 한정됨으로써 민족공동체에 대하여는 사실상 소극적인 사랑의 태도를 견지한 경우도 많았다. 변혁적인 성격의 개혁주의 세계관은 민족공동체를 적극적인 사랑과 봉사의 대상으로 보게 한다. 따라서 기독교교육은 기독교인들이 민족공동체를 향하여 적극적인 사랑의 열망을 키우고, 적극적인 봉사의 태도와 방법을 가르쳐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민족을 규범화하는 민족주의자가 될 때 민족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오류에 빠지게 되고, 정반대로 민족공동체를 속의 영역으로 간주하여 스스로를 그것으로부터 분리하거나 그에 등진다고 할 때는 변혁의 과제를 버리는 결과가 된다.

기독교공동체가 민족주의자들로부터 반민족적이라는 낙인이 찍힌다면 전도의 기회가 축소되고 심할 경우 박해에 노출된다. 안티기독교운동에 앞장 선 사람들은 종종 민족주의의 이름으로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다. 민족공동체의 정치 운동에 있어 기독교인들은 적극적으로 자신들이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변호하고 보여줄 필요가 있다. 민족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들은 민족주의자들의 정치적 수사보다 힘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의 민족 사랑을 지속적으로 변호하고 홍보해야 한다.

민족 공동체를 향한 사랑이 친 민족적인 태도를 뜻한다면, 민족공동체를 일터로 삼고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해야 할 가치인 정의와 평화는 초민족주의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의 규범에 따라 민족공동체를 형성하고 발전시켜간다고 할 때 집중해야 할 가치는 하나님 나라의 중심가치인 정의와 평화이다. 예수님의 팔복강의(마5:1-12)는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가치가 정의와 평화이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정의와 평화를 위한 열망과 애통과 수고를 요구한다.

기독교철학자 Wolterstorff는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염두에 두면서 정의와 평화를 기독교교육의 주요한 과제로 잘 제안하였다. 그는 정의를 타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Wolterstorff, 2004:142). 그는 특히 소외된 자들, 압제받는 자들, 고통 받는 자들이 공평하게 대우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사회 안에서 정의를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정의의 경향성을 함양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를 위해 비판적 사고뿐만 아니라 훈계, 모델링, 공감의 방법을 제안하였다. 정의의 경향성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정의롭게 가르치고, 정의롭게 살고, 정의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Wolterstorff, 2004:137,150-151).

정의의 교육은 평화의 교육으로 이어진다. Wolterstorff(2004:23)는 평화를 하나님과의 관계, 동료 인간들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의 정당하고 화목한 관계성을 함의한다고 보았고, 그러한 평화의 관계에는 기쁨과 감사가 있다고 보았다. 평화를 위한 교육은 사회공동체 안에서 가난한 자, 압제당하는 자, 희생된 자, 오염된 자연 환경의 애통을 공감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이 정당한 관계 안에서의 평화 상태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하는 교육을 뜻한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원리인 정의와 평화를 위한 교육은 현대한국사회에서도 민족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정의의 교육이 전체주의로서의 민족주의가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억압했던 결과들을 치유하게 한다면, 평화의 교육은 민족주의의 폐쇄성, 그리고 정치적 수사와 달리 민족주의가 실제로 만들어낸 분열과 긴장과 갈등을 회복시킨다. 정의와 평화는 민족공동체를 과거 지향적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민족주의 정치적 수사에 감추어진 위선과 권력, 그리고 그에서 초래된 억압과 상처를 드러냄으로써 진리를 지향하게 만든다. 따라서 정의와 평화를 위한 교육은 참다운 의미에서 민족을 위한 교육일 수

있다.

4. 나가면서

민족주의는 한국사회에서 집단무의식 층의 정서를 표현하는 정치이데올로기이다. 거의 신성화된 종교적 이념으로서 민족주의는 그 동안 주로 호소되고 이용되었을 뿐 제대로 반성되지 못했다. 근대와 현대 한국사회에서 민족주의는 정치이념들을 정당화하고 대중을 동원시키는 일에 쉽게 이용되었다. 정권의 위기 때마다 마지막에 호소되는 이념도 민족주의였다. 민족주의는 국가발전에 기여한 바도 많지만, 민족주의의 발전과 민족주의에 대한 비판적 논의에서 이미 드러난 것처럼 민족주의는 위험성과 한계를 가진 이념이었다.

한국민족주의의 이러한 한계들은 기독교 세계관에서 볼 때 더 명확하다. 민족주의는 민족과 특정 창조국면을 절대화한 종교적 이념이었고, 민족과 국가를 절대화함으로써 공동체 내의 다른 집단들과 개인을 억압했으며, 종종 민족 자체를 성 혹은 절대선으로, 그리고 민족에 위협적인 집단을 악 속은 속으로 단정함으로써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민족 내에서의 반립을 이해하고 변혁적 과제를 수행해야 할 과제를 잊게 만들었다.

따라서 민족공동체를 위한 기독교교육은 민족주의의 종교성을 벗겨내고 환원성을 회복시키는 세계관교육의 과제를 가진다. 친민족적 차원에서는, 민족을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는 민족사랑 함양의 교육, 민족 공동체 안에서 봉사하고 민족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게 하는 교육의 과제가 있고, 초민족주의적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인 정의와 평화를 민족공동체 안에 실현되도록 하고 그 목표를 위한 효율적인 경향성을 형성하는 교육의 과제를 가진다.

* 참고문헌

- 강만길. (2005). **20세기 우리 역사: 강만길 교수의 현대사 강의**. 서울: 창작과 비평사.
- 강만길. (2006). **우리 통일, 어떻게 할까요**. 서울: 당대.
- 강만길. (2007a). **고쳐 쓴 한국근대사**. 서울: (주)창비.
- 강만길. (2007b). **고쳐 쓴 한국현대사**. 서울: (주)창비.
- 강만길. (2008). **우리민족운동사론**. 서울: 서해문집.
- 강원택 외. (2005.8.14). 광복 60주년, 신세대들의 민족주의 조사. *인터넷뉴스 조선닷컴*. <http://www.chosun.com/national/news/200508/200508140310.html>
- 권재현. (2004.10.25). ‘대중독재’ 학술대회, “종교가 된 정치, 이성을 마취시켜”. *donga.com 뉴스*. http://www.donga.com/fbin/output?f=todaynews&code=j_&n=20041...
- 김동성. (1996). **한국민족주의 연구**. 서울: 오름.
- 김민진. (2005.10.13). 지역감정 정치적으로 부풀려져. *중앙일보*. EAI ‘국민정체성’조사. *중앙일보*. 제12676. 40.
- 김승현 박성우. (2005.10.13). 보수단체의 6.25 남침 전쟁 표현은 북한 주권 인정한 것...보안법 위반. *중앙일보*. 제12676. 43.
- 김영명. (2002). **우리 눈으로 본 세계화와 민족주의**. 서울: 오름.

- 김종혁. (2009.3.23). 시대를 논하다: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중앙일보*. 파워인터뷰. 8.
- 김태현. (2005.10.13). 진보-보수보다 빈부갈등이 더 심각. EAI '국민정체성'조사. *중앙일보*. 제12676. 40.
- 류근일. (2006.10.2). 사이버 민족주의 내전. *인터넷 조선닷컴*. <http://www.chosun.com/svc/new/www/printArticle.html?id=2006100...>
- 박민선. (2005.8.14). 신세대의 민족주의. *인터넷 조선닷컴*. <http://www.chosun.com/national/news/200508/200508140303.html>
- 박성조. (2006.8.10). 동족 히스테리를 버려라. *조선일보*. A31.
- 박지향. (2006.5.20). 민족주의의 재인식. *조선일보*. 제26564. 오피니언.
- 박호성. (1997). **남북한 민족주의 비교연구: '한반도 민족주의'를 위하여**. 서울: 당대.
- 배영대. (2004.11.25). 임지현 교수 “포스트 민족주의로 전환” 주장. *중앙일보*. 제12405. 20.
- 배영대. (2004.12.8). 대중독재. *중앙일보*. 제12416. 40.
- 배영대. (2005.4.27). 민족주의 연구 대가 베네딕트 앤더슨. *중앙일보*. 제12533. 43.
- 배영대. (2005.5.24). 시대를 논하다: 클라우스 오페 박사와 한상진 교수. *중앙일보*. 제12556. 40.
- 배영대 외. (2005.8.14). 신세대의 민족주의: 경제관련의식. *인터넷뉴스 조선닷컴*. <http://www.chosun.com/national/news/200508/200508140299.html>
- 백낙청. (2007). **한반도식 통일, 현재진행형**. 서울: (주)창비.
- 백낙청 외. (2005). **21세기 한반도 구상**. 서울: (주)창비.
- 서중석 (2004). **배반당한 한국민족주의**.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손호철. (2004). **현대한국정치: 이론과 역사 1945-2003**. 서울: 사회평론.
- 신기욱. (2009). **한국 민족주의의 계보와 정치**. (이진준 역). 서울: (주)창비.
- 원태희. (2005.1.19). 한.중.일 민족주의 점점 찾는다. *경향신문*. http://www.skku.ac.kr/skku/public/news-ora/popup_notice.html?b_na 2005.1.20.
- 윤민재. (2003). **세계화시대 남북한 통합의 방향과 과제: 민족주의의 관점에서**. 서울: 집문당.
- 이내영. (2005.10.13). 바뀌는 통일의식. *중앙일보*. EAI '국민정체성'조사. *중앙일보*. 제12676. 43.
- 이덕일. (2006.3.9). 민족과 탈민족. *조선일보*. 30.
- 이영훈. (2006.2.13). “해방사”, 그 난폭한 도그마. *인터넷뉴스 조선닷컴*. <http://www.chosun.com/svc/news/www/printArticle.html?id=2006021...>
- 임대식. (2006.3.18). 아직은 민족의 깃발 내릴 때 아니다. *인터넷 중앙일보*. 연예. http://service.joins.com/asp/print_article.asp?aid=2698853&esectcod...
- 임지현. (2000). **민족주의는 반역이다: 신화와 허무의 민족주의 담론을 넘어**. 서울: 조합공동체 소나무.
- 임지현. (2001). **이념의 속살**. 서울: 삼인.
- 임지현. (2005.5.1). 일본인과 개 출입금지?. *중앙일보*. 제12537. 43.
- 임지현. (2006.3.18). 민족주의, 탈민족주의는 결국 '공범'관계?. *인터넷 중앙일보*. 연예. http://service.joins.com/asp/print_article.asp?aid=2698853&esectcod...
- 조기원. (2006.2.17). 2006 요즘 대학생들: 취향은 세계주의 이념은 애국주의. *한겨레*.

<http://www.hani.co.kr/popups/print.hani?ksn=102914>

- 조우석. (2005.10.24). 강정구 교수 파문 어떻게 볼 것인가. *중앙일보*. 제12685. 43.
- 조선일보 한국갤럽 공동. (2006.3.4). 2006국민의식조사. *조선일보*. 제26498. A4.
- 조성국. (1999). “홍익인간”교육이념과 단군상 참배. **단군상 건립, 무엇이 문제인가?** (김성수 신득일 편). 부산: 고신대학교. 55-68.
- 조성국. (2004). 한국 기독교교육의 교육적 인간상의 이상과 현실. *기독교교육논총*, 10. 203-239.
- 조성국. (2007). 한국교회초기 기독교학교의 건학이념 연구. **평양대부흥운동과 기독교학교**. (기독교학교연구소 편).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67-188.
- 조성국. (2008). 흐른 판 프린스터리의 기독교교육사상. *한국복음주의 기독교교육학회 제12회 논문발표회 자료집*. 2008.9.27. 4-18.
- 최영창. (2005.2.15). 21세기 한국학, 민족주의 틀 깨야. *유일석간 살구빛신문*. <http://www.munhwa.com/culture/200502/15/20050215010128300740...>
- 최영창. (2006.6.27). 혈통민족 강조가 사상 빈곤 불렀다. *문화일보*. http://kr.news.yahoo.com/ets/print_text.htm?articleid=2006062715163.
- 최장집. (2001).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서울: 나남출판.
- 한겨레기사섹션. (2005.5.24). 김진홍 목사 “지배세력 교체는 계급투쟁”. *인터넷 한겨레*. <http://www.hani.com/section-005000000/2005/05/p0050000002005...>
- 함재봉. (2004.8.28). 타협의 역사와 순수의 역사. *중앙일보*. 제12332. 27.
- 허동현. (2006.3.18). 현실적 대안은 ‘열린 민족주의’ 뿐. *인터넷 중앙일보*. 연예. http://service.joins.com/asp/print_article.asp?aid=2698853&esectcod...
- Anderson, B. (2002). **상상의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윤형숙 역). 서울: 나남출판.
- Botha, E. (1984). Christian-national: authentic, ideological or secularized nationalism?. *Our reformational tradition: a rich heritage and lasting vocation*. (VanderWalt, B.J. Ed.). Potchefstroom: Potchefstroom University Press.
- Huntington, S. (1997). *The clash of civilization: remaking of world order*. New York: Touchstone.
- Kohn, H. et.al. **민족주의, 독일의 비극, 역사주의의 빈곤**. (차기벽 외 역). (삼성판 세계사상 전집 제43권). 서울: 삼성출판사.
- Spier, J.M. (1979).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philosophy*. Nutley, N.J.: The Craig Press.
- Wolterstorff, N. (2004). *Educating for Shalom: essays on Christian higher education*. Grand Rapids: Wm. B. Eerdmans.